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우주 안에 하나의 인류

# HUMANKIND IN THE UNIVERSE

KBS교향악단 제803회 정기연주회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4. 6. 29.(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공연 관람 에티켓 5개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PROGRAM

|  |  |              |              |
|--|--|--------------|--------------|
| <p>슈wantner<br/><b>J. Schwantner</b></p>                           | <p>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 (1982) *국내 초연<br/><b>New Morning for the World: “Daybreak of Freedom” (1982)</b><br/>*Korean Premiere</p> | <p>⌚ 25'</p> |              |
| <p>인터미션 Intermission</p>   |  |              | <p>⌚ 15'</p> |
| <p>홀스트<br/><b>G. Holst</b></p>                                     | <p>‘행성’, 작품 32<br/><b>‘The Planets’, Op.32</b></p>   | <p>⌚ 51'</p> |              |
| <p>1. Mars, the Bringer of War (6')<br/>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p>         |  |              |              |
| <p>2. Venus, the Bringer of Peace (10')<br/>금성, 평화를 가져오는 자</p>     |  |              |              |
| <p>3. Mercury, the Winged Messenger (4')<br/>수성, 날개 달린 전령</p>      |  |              |              |
| <p>4. 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 (7')<br/>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p> |  |              |              |
| <p>5. Saturn, the Bringer of Old Age (11')<br/>토성, 황혼기를 가져오는 자</p> |  |              |              |
| <p>6. Uranus, the Magician (6')<br/>천왕성, 마법사</p>                   |  |              |              |
| <p>7. Neptune, the Mystic (7')<br/>해왕성, 신비주의자</p>                  |  |              |              |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YOEL LEVI

## CONDUCTOR

### 지휘 요엘 레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라크 레이블에서 발매했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SAMUEL YOUN

BASS-BARITONE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내레이터

“혼이 담긴 파괴력 있는 목소리”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 가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바리톤 ‘사무엘 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공부를 시작(이인영 교수 사사)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과 독일 쾰른 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쳤고, 여러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입증하였다.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주역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로린 마젤, 크리스티안 틸레만, 피에르 볼레즈, 세미온 비취코프, 야닉 네제 세갱 등 거장 지휘자들과의 협연으로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마드리드 왕립극장, 바르셀로나 리세우 국립극장, 뮌헨 국립극장, 비엔나 오페라극장,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에 출연하였다.

2022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Kammersänger) 칭호를 수여받은 사무엘 윤은 2014년에는 독일 쾰른시에서 수여하는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을 수상하였고, 제8회 대원음악상 연주자상, 2016년에는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이인선상을 수상하였다.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사무엘 윤은 쾰른 오페라 극장 종신 성악가 솔리스트로 활동 중에 2022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을 담은 첫 앨범 <From Darkness to Light (어둠을 지나 빛으로)>가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발매되었다.

2024년 9월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토스카> 스키타피아 역으로 출연을 예정하고 있고, 11월 예술의전당 기획 <보컬 마스터 시리즈>로 오페라극장에서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다.

## 서울모테트합창단

박치용(상임지휘자)

# SEOUL MOTET CHOIR

1989년 창단 이후 35년째를 맞이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상임지휘자 박치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민간 프로페셔널합창단으로 최상의 합창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 문화를 선도해 온 합창단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국내외 많은 평론가들로부터의 호평은 물론 1997년 협연했던 영국의 작곡가 겸 지휘자 존 루터와 2013년 협연한 독일의 헬무트 릴링 등 합창음악과 교회음악의 세계적 권위자들과 수많은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로부터 음악성과 연주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합창단이라는 찬사를 들어왔다.

창단 이후 1,500여회의 연주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왔으며 특별히 바흐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연주로 한국 사회와 음악계에 큰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



## 하남시립합창단

장민혜(객원지휘)

# HANAM CIVIC CHOIR

1990년 창단된 하남시립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민과 소통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강화하는 전문합창단이다.

하남시립합창단은 유럽의 전통 합창곡을 주제로 한 정기연주회로 양질의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참신한 레퍼토리의 기획연주회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30만 하남시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합창 페스티벌 <하남의 울림>은 지역 합창 문화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젊고 신선한 바람으로 합창계에 선한 영향력을 더해진 하남시립합창단은 앞으로도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과 시민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슈완트너,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 (1982) \* 국내 초연

J. Schwanter, New Morning for the World: “Daybreak of Freedom” (1982)

\*Korean Premiere

**작곡연도** 1982년

**초연** 1983년 1월 15일, 미국 워싱턴

**편성** 플루트4(피콜로 겸함),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3(베이스클라리넷 겸함), 바순3, 호른4, 트럼펫3, 트롬본4, 튜바, 팀파니,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마림바, 실로폰, 탐탐, 작은탐탐, 톰통, 실로폰, 트라이앵글, 베이스드럼, 심벌즈, 크로탈, 팀발레스, 첼레스타, 하프, 피아노, 현5부

**연주시간** 약 25분

1983년 1월 15일, 작곡가 조셉 슈완트너는 통신 기업 AT&T로부터 위촉받은 신작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의 초연을 앞두고 있었다. 데이비드 에프론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필하모니아가 연주할 이 작품은 여러 악기가 연주에 투입되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곡이었지만 정작 초연의 핵심은 음악이 아닌 곳에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인종차별을 딛고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1982년에 은퇴 이후 MLB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설적인 선수 윌리 스타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성공적이었던 선수 생활을 축하받기 위해서가 아닌, 작품의 내레이터로 나선 스타젤은 ‘자유를 향한 대행진(1958)’, ‘셀마 행진 이야기(1965)’, ‘버밍햄 감옥에서의 편지(1963)’ 같은 마틴 루터 킹의 유명 연설 일부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낭독했다. 콘서트홀에 작품이 울려 퍼지던 이날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권운동가의 생일이기도 했다.

1982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있었던 초연 이래로 슈완트너의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은 꾸준히 연주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앞서 초연의 상황에서 언급되었듯 이 작품은 내레이션이 포함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1942년에 작곡된 애런 코플랜드의 <링컨의 초상>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줄곧 이어진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 활동 초기, 슈완트너는 여느 동시대 작곡가처럼 음렬주의를 활용한 작품을 보여주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음악의 색채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여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 국내 초연되는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은 선명한 음색과 유연한 조성감, 그리고 타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곡가 특유의 기법을 가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타악기의 강렬한 울림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호른을 중심으로 한 금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가운데 목관악기군과 첼레스타, 글로켄슈필, 비브라폰 같은 타악기들이 작품에 영롱한 빛깔을 더하며 음악의 공간을 넓게 쓰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어지는 중간 부분은 현악기군의 고요하면서도 깊은 음색이 사색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앞서 보여주었던 열기를 가리앉힌다.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하자. 소강상태에 있던 음악에 타악기군이 반짝이는 빛을 더하며 작품은 마지막 부분에 돌입한다. 도입부에서 들었던 주제가 더욱 활기를 띤 상태로 연주되고 여기에 격렬한 북소리가 더해지다가 갑작스럽게 음악의 방향이 바뀌며 현악기가 정적에 가까운 순간을 연출한다.

음악적으로는 에필로그이면서 내레이션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서 내레이터는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963)”를 낭독하고 오케스트라는 준비해 두었던 장대한 피날레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윽고 웅장한 화음이 울려 퍼지던 뒤 작품은 타악기와 건반악기, 그리고 하프의 영롱한 울림을 빌려와 장대한 이야기를 고요히 매듭짓는다.

## 홀스트, '행성', 작품32

G. Holst, 'The Planets', Op.32

**작곡연도** 1914년-1916년

**초연** 1918년 9월 29일, 영국 런던

**편성** 플루트4(피콜로, 알토플루트 겸함), 오보에3(베이스오보에 겸함), 잉글리쉬호른, 클라리넷3, 베이스클라리넷, 바순3, 콘트라바순, 호른6, 트럼펫4, 트롬본3, 테너튜바, 튜바, 팀파니2, 글로켄슈필, 실로폰, 탐탐, 차임, 스네어드럼, 탬버린, 베이스드럼, 트라이앵글, 심벌, 하프2, 첼레스타, 오르간, 현5부, 여성합창

**연주시간** 약 51분

지금과 같은 천체의 개념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시절, 사람들은 신화와 점성술에 기대어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을 이해하려고 했다.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 또한 이 두 분야에 매료된 상태로 우주를 바라보았고 이를 교향 모음곡 〈행성〉으로 썼다. 착수 단계부터 각 행성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그리스/로마 신화 속 신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데 집중한 이 곡은 압도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독창적인 음향으로 우주적인 느낌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홀스트는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14년, 전운을 감지하면서 첫 곡인 '화성'을 완성하였고 이후 '금성'과 '목성'을, 그리고 이듬해인 1915년에는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을 작곡했고, 1916년에는 모음곡의 세 번째 곡이 될 '수성'을 완성하며 작품을 완결지었다. 이 모음곡은 행성 본래의 위치에 따른 순서인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왕성이 아닌, 작곡가의 독자적인 배열을 따르고 있다. 각 모음곡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셋잇단음표를 앞세워 행진하는 리듬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힘은 점차 커져 어느덧 화성 표면을 붉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이윽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지는 행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때 즈음, 음악은 절규에 가까운 화음을 쏟아낸 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한 강렬한 화음을 콘서트홀 바닥에 내리꽂는다.

**'금성, 평화를 가져오는 자'**. 호른 솔로 이후 등장하는 플루트와 오보에가 이 고요한 행성을 깨운다. 번갈아 가며 연주되는 화음이 느린 속도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부제에 걸맞은 주제가 관능적인 바이올린 독주로 표현된다. 이어 첼로 독주가 앞서 연주되었던 평화의 주제를 부드럽게 받으며 다른 악기에도 서서히 온화한 분위기를 전파한다.

**'수성, 날개 달린 전령'**. 이 행성의 주인은 유피테르(제우스)의 전령 메르큐리우스(헤르메스). 전령의 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움직임이 작품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나름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주제와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듯한 짝맞는 주제가 교차하는 이 곡은 끝에 가서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듯 가벼운 화음을 살짝 떨어트리며 마무리된다.

**'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 현악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더해지는 호른 총주가 작품의 문을 당당하게 열어젖힌다. 모음곡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작품의 주제는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부제에 걸맞게 진행된다. 알기 쉬운 주제 선율과 이를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저음부의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진 뒤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율이 흐르는 중간 부분에 접어든다. 두 번째 구간에서의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고 느껴질 즈음, 작곡가는 목관악기를 이용해 다시 음악을 원주제로 돌리며 축제의 절정으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간다.

**'토성, 황혼기를 가져오는 자'**. 음악이 나이를 먹는다면 아마 이런 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 서로 다른 화음을 조용하게 연주하는 부분은 앞서 연주되었던 '금성'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으나 이 '토성'에서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하다. 이어 여러 악기들이 큼직한 움직임으로 음악 여기저기에 거대한 화음의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 뒤로는 마치 천체의 광활함을 보여주는 듯한 음향이 돌아간다. 소란이 정리된 이후, 작품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꼭 지루함과 혼돈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듯 정돈된 음향으로 마무리된다.

**'천왕성, 마법사'**. 이곳에 도달한 이에게 떨어지는 준엄한 음표들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이 행성의 주인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이지만 곡을 열었던 네 음표들, 작품에서 자주 들리게 될 동기인 G-S(E<sup>b</sup>)-A-B는 작곡가의 이름인 '구스타브'에서 따온 것이다. 작품은 위엄 있는 움직임과 '마법사'라는 부제에 걸맞은 번뜩임을 보여주다가 돌연 찢어질 듯한 화음을 콘서트홀 전체에 울린 뒤, 그 화음의 잔향이 메아리치는 광경을 지켜본 뒤 사라진다.

**'해왕성, 신비주의자'**. 이제 태양계의 가장 끝에 위치한 행성, 해왕성에 도달했다. '신비주의자'라는 별칭처럼 모든 것이 모호하게 울리는 이곳. 미지의 상태가 조금씩 자라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 합창단의 합창이 세이렌의 목소리처럼 흘러나올 때, 우리는 너무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글 | 윤무진(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 New Morning for the World

## “Daybreak of Freedom”

*on texts of Martin Luther King, Jr.*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 tired of being segregated and humiliated,  
tired of being kicked about by the brutal feet of oppression.<sup>1</sup>

---

We are going to walk non-violently and peacefully to let the nation and the world know that we are tired now. We've lived with slavery and segregation three hundred and forty-five years. We waited a long time for freedom.<sup>2</sup>

---

Before the pilgrims landed at Plymouth, we were *here*.  
Before the pen of Jefferson etched across the pages of history the majestic word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 were *here*.  
For more than two centuries, our fore parents labored in this country without wages and built the homes of their masters in the midst of brutal injustice and shameful humiliation. And yet out of a bottomless vitality, they continued to thrive and develop.  
If the inexpressible cruelties of slavery could not stop us, the opposition we now face will surely fail. We will win our freedom because the sacred heritage of our nation and the eternal will of God are embodied in our echoing demands.<sup>3</sup>

---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Now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from the quicksands of racial injustice to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Now is the time to make justice a reality to all of God's children.

---

We cannot walk alone.  
As we walk, we must make the pledge that we shall always march ahead.  
We cannot turn back. *No, no*, we are not satisfied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sup>4-9</sup>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쳐 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종차별과 모멸감에 지치고,  
압제의 잔혹한 발아래 짓눌리는 것에 지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행진으로 미 전역과 전 세계에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삼백하고도 사십오 년을 노예제와 흑백차별제도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

청교도들이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퍼슨의 펜이 독립선언문의 장엄한 단어를 역사의 장에 새겨넣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우리의 선조는 이 땅에서 무일푼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불평등과 굴욕 속에서 그들의 주인집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없는 생명력으로 선조들은 번성하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노예제라는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직면한 반대 세력 역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에 이 나라의 신성한 유산과 신의 영원한 의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어둡고 적막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인종 평등이라는 햇살이 비추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모래 수렁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내  
형제애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신의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

우리는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전진하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정이 거센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We're on the move now*

-neither the burning of our churches nor the beating and killing of our clergymen will stop us.

*We're on the move now*-my people listen! The battle is in our hands

I know some of you are asking, "*How long will it take?*"

I come to say to you however difficult the moment, however frustrating the hour,

it will not be long because truth pressed to the earth will rise again.

*How long?*

*Not long* because no lie can live forever.

*How long?*

*Not long* because you will reap what you sow.

*How long?*

*Not long* because the arm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 justice.<sup>10.</sup>

When the history books are written in future generations, the historians will have pause and say,

*"There lived a great people- a black people -who injected new meaning*

*and dignity into the veins of civilization. This is our challenge and our responsibility."*<sup>11.</sup>

I have a dream.<sup>12.</sup>

The dream is one of equality of opportunity, of privilege and property widely distributed; a dream of a land where men will not take necessities from the many to give luxuries to the few; a dream of a land where men do not argue that the color of a man's skin determines the content of his character; a dream of a place where all our gifts and resources are held not for ourselves alone but as instruments of service for the rest of humanity; the dream of a country where every man will respect the dignity and worth of all human personality, and men will dare to live together as brothers.<sup>13.</sup>

Whenever it is fulfilled, we will emerge from the bleak and desolate midnight of man's inhumanity to man into the bright and glowing daybreak of freedom and justice for all of God's children.<sup>13.</sup>

1. From STRIDE TOWARD FREEDOM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58 by Martin Luther King, Jr.  
2. From BEHIND THE SELMA MARCH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65 by Martin Luther King, Jr.  
3. From LETTER FROM BIRMINGHAM JAIL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63, 1964 by Martin Luther King, Jr.  
4-9. From I HAVE A DREAM by Martin Luther King, Jr. @ Copyright 1963 by Martin Luther King, Jr.  
10. From BEHIND THE SELMA MARCH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65 by Martin Luther King, Jr.  
11. From STRIDE TOWARD FREEDOM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58 by Martin Luther King, Jr.  
12. From I HAVE A DREAM by Martin Luther King, Jr. Copyright 1963 by Martin Luther King, Jr.  
13. @ Copyright 1958, 1963 by Martin Luther King, Jr.  
All the above used by permission of JOAN DAVES.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불에 타도, 우리들의 성직자가 구타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손에 투쟁이 달려 있습니다.

*"이 투쟁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아무리 어려운 순간, 절망스러운 시간이 찾아와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억눌려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법 아닙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짓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닙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도덕적 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가 역사책을 쓸 때 역사학자들은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이지 위대한 사람들이 살았다. 우리 문명에 새로운 의미와 존엄성을 불어넣은 -*

*위대한 흑인들이 - 살았다."* 라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기회의 평등과 특권과 재산이 널리 분배되는 나라;

소수의 사치를 위해 다수가 필요한 걸 빼앗지 않는 나라;

피부색이 곧 인격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지 않는 나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자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나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제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이라는 암울하고 황량한 어둠에서 벗어나 신의 모든 아이를 위한 자유와 정의라는 밝고 빛나는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 번역 | 류석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자유를 향한 발걸음》에서 발췌. 195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셀마 행진 뒤에서》에서 발췌. 1965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에서 발췌. 1963, 196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4-9.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 발췌.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셀마 행진 뒤에서》에서 발췌. 1965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자유를 향한 발걸음》에서 발췌. 195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 발췌.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1958,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작권.  
이상 모든 저작권은 조안 데이브스의 허가를 받아 사용

# KBS교향악단 최근 주요 이슈



## KBS교향악단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4만 달성, 아시아 1위

KBS교향악단 공식 유튜브 채널이 '실버 버튼'을 받는 기준이 되는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한지 한 달 만에 14만명을 기록하며 해외 주요 오케스트라 구독자 수 아시아 1위에 올랐다. 한국 클래식 음악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비해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뜻깊다.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클래식 매니아층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의 모습이나, 게임 및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클래식 장르에 대한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새로운 기획과 다양한 시도로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 '호국보훈의 달' 군부대 위문 <KBS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배우 이영애 후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KBS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전 용사의 딸'인 배우 이영애가 5천만원을 후원했다. KBS교향악단은 6월 20일(목)~21일(금)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파주 접경지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려주고 평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참전 용사의 딸'인 배우 이영애가 후원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KBS교향악단, '청년 음악예술가 양성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

KBS교향악단이 한국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울형뉴딜일자리 '청년 음악예술가 양성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실무 인턴 참여자 2명과 매칭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 음악가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로 마련되어 KBS교향악단은 2021년부터 3년째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매칭된 위기을(바이올린 전공), 허효정(성악 전공) 인턴은 KBS교향악단에서 약 6개월 간 근무하며 공연 기획과 운영 등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KBS교향악단은 청년 인턴 사원을 고용함으로써 젊은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음악 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공연을 움직이는 사람들' - KBS교향악단 장동인 악보계 인터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공연 때마다 본인 악보를 챙겨 다닐까?'라는 물음에 '아니요, 오케스트라엔 악보계가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가 '공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KBS교향악단 악보계 장동인 과장을 인터뷰했다. 공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제일 늦게 떠나는 '악보계'라는 직업. 이번 인터뷰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공연을 지원하는 이들의 숨은 공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동인 과장 인터뷰



2024

#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I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I

2024. 7. 12.(금) 20:00 롯데콘서트홀



당신의 때에 나를 부르소서

# INVITE ME IN YOUR TIME



지휘 / 한스 그라프 Hans Graf  
첼로 / 파블로 페란데스 Pablo Ferrández

2024. 7. 18.(Thu) 20:00

예술의전당콘서트홀  
Seoul Arts Center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                           |  |   |                      |
|---------------------------|--|---|----------------------|
| <b>사장</b><br>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b>한창록</b><br>피에타리 잉키넨   |   |                      |
| <b>단원</b>                 | <b>악장* 부악장** 수석* 부수석**</b>   | <b>객원수석</b>                             | <b>악장</b>            |
| <b>제1바이올린</b>             |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br>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 David Coucheron*<br>(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                      |
| <b>제2바이올린</b>             |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혜<br>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 안명주+<br>채재일+                            |                      |
| <b>비올라</b>                | 진덕+ 한벨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 이석준+                                    |                      |
| <b>첼로</b>                 |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 서지훈+                                    |                      |
| <b>더블베이스</b>              |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 트럼펫                                     |                      |
| <b>플루트</b>                |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 <b>트롬본</b>                              | Henri-Michel Garzia+ |
| <b>오보에</b>                |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   |                      |
| <b>클라리넷</b>               |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 <b>한국예술종합학교</b>                         | <b>인턴십 2기</b>        |
| <b>바순</b>                 |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 <b>제1바이올린</b>                           | 김수연                  |
| <b>호른</b>                 |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 <b>제2바이올린</b>                           | 박예진 이예령              |
| <b>트럼펫</b>                |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현   | <b>비올라</b>                              | 이태형                  |
| <b>트롬본</b>                | 윤지언  | <b>첼로</b>                               | 김유림 심수연              |
| <b>베이스트롬본</b>             | 정다운  | <b>바순</b>                               | 최찬열                  |
| <b>튜바</b>                 | Norito Usui  | <b>호른</b>                               | 민예원                  |
| <b>팀파니</b>                | 이원석+   | <b>트럼펫</b>                              | 이영훈                  |
| <b>타악기</b>                |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   |                      |
| <b>하프</b>                 | 김서원  |   |                      |
| <b>사무국</b>                | <b>사무국장</b> 신승원<br><b>대외협력실 실장</b> 김원재   |   |                      |
| <b>공연기획팀</b>              | <b>팀장</b> 손유리 <b>차장</b> 김지민 <b>과장</b> 성채은 <b>대리</b> 전현정 최난희<br><b>인턴</b> 위기을 허효정 |   |                      |
| (공연지원파트)                  | <b>팀장</b> 강길호 <b>차장</b> 이한신 <b>과장</b> 이미라 <b>사원</b> 차하영 장태형 <b>PD</b> 서영재        |   |                      |
| <b>공연사업팀</b>              | <b>팀장</b> 손대승 <b>차장</b> 유정의 <b>유연철</b> 박연선 <b>사원</b> 윤자윤                         |   |                      |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등급              | 후원금액    | 기간  | 등급별 혜택  |
|-----------------|---------|-----|---|
| <b>Symphony</b> | 1억원 이상  | 10년 |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br>-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
| <b>Concerto</b> | 3천만원 이상 | 5년  | - VVIP만찬<br>-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
| <b>Cantata</b>  | 1천만원 이상 | 2년  | - VIP만찬<br>-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
| <b>Nocturne</b> | 5백만원 이상 | 1년  |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br>- 후원의 밤 행사 초청<br>-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br>-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
| <b>Prelude</b>  | 1백만원 이상 | 1년  |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br>- 연주 Lecture 초청<br>-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br>-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
| <b>Etude</b>    | 1십만원 이상 | 1년  |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후원회원 가입의 편

**KBS교향악단 이사회**

|             |  |           |                   |
|-------------|--|-----------|-------------------|
| <b>이사장</b>  |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b>감사</b> |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b>상임이사</b> |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           |                   |
| <b>이사</b>   |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br>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br>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장<br>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br>한경천 KBS 예능센터장<br>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           |                   |

**KBS교향악단 후원회**

|                 |  |                |  |
|-----------------|--|----------------|--|
| <b>Concerto</b> | 김덕술 유니스트리 자산운용(주) 회장<br>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br>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 전)KBS교향악단 이사장<br>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현 KBS교향악단 이사장<br>이영애 배우<br>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br>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br><b>NH-Amundi자산운용</b>  | <b>Prelude</b> | 박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br>김도영 변호사<br>김승중 전)KBS감사<br>김영선 KBS PD<br>김영철 배우<br>김용<br>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br>김진오 변호사<br>김한나 변호사<br>김희연 전) KBS교향악단 첼로 단원<br>노기용<br>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br>박옥균<br>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br>오지연 변호사<br>유수엽<br>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br>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br>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br>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br>장희용 변호사<br>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br>정승환 변호사<br>정용실<br>정인채 (주)초록숲 대표<br>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
| <b>Cantata</b>  | 고중재 (주)이소프팅 대표이사<br>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br>구자관 (주)삼구INC 회장<br>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br>김효수 (주)효석 대표<br>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br>박은관 (주)시몬느 회장<br>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br>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br>설명수 석교실업 회장<br><b>신한투자증권</b><br><b>안국약품(주)</b><br>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br>유승원 동우교역 대표<br>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br>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br>이재영 L&T렉서스 회장<br>이충희 (주)듀오 회장<br>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br>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br>정진학 유진기업 사장<br>최명배 (주)엑시콘 사장<br>허승현 PHA 사장<br><b>KDB산업은행</b> |                |  |
| <b>Nocturne</b> | 교보문고<br>국은주<br>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br>김영기 변호사<br>이종원 H&O 코리아 대표<br>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br>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br><b>NH투자증권</b>  |                |  |



#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